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1
04

포커스

2011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특별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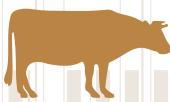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대책
달라진 살처분농가 보상정책 & 입식 매뉴얼

20만 한우농가들의 염원을 담아
어떠한 위기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더 큰 미래로 힘차게 달려갑니다



C·O·N·T·E·N·T·S

포커스	02-03
2011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특별기획	04-07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대책 한우협회 건의사항 달리진 실천분농가 보상정책 & 입식 매뉴얼	
현장속으로	08-09
유통자문화의	
파워인터뷰	10
남호경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Information	11
소도체 이상육(결함)의 발생원인 및 현상	
한우자조금 뉴스	12-13
한우사업단 안내	14
애독자 코너 & 인증점 소개	15



한우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구제역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소 값 하락과 사료값 상승 등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힘들다고 주저 앉을 수 없습니다. 4월 말부터 진행하는 대규모 소비촉진행사를 통해 단기적인 적체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우 유통망의 대대적인 점검과 암소지를 도태운동을 통해 한우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갑시다.

포·커·스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2011 제1차 회의

소비촉진홍보사업 중점적으로 진행
김영길 의장, 성영기 · 이구영 감사 선출



한우자조금
대의원회는 지
난 12일 농협
안성교육원에
서 2011년 제1
차 대의원 총
회를 열고 신
임 대의원회
의장에 김영길
관리위원장을 선출했다. 또 신임 감사에는 성영기(경남 합천), 이구영(경기 평택) 대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대의원 의장 임기 만료에 따라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는 조위필 후보와 김영길 후보가 입후보한 가운데 총 투표수 181표 중 102표를 김 후보가 얻어 당선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311억 1,800만 원의 2010년도 한우자조금 결산(안)을 의결하는 한편 2011년도 예산 317억 1,891여만 원의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을 보고했다.

이로써 한우자조금은 올해 구제역으로 한우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촉진홍보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한우 유통·판매업체와 공동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군납·학교 급식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광고 및 미디어 홍보를 진행해 소비자들에게 한우의 안전성 및 우수성을 알리며 민족산업으로써의 한우로 소비자에게 접근할 예정이다. 농가에게는 흥수출하 방지를 위해 계도 홍보를 하며 자율도태를 추진한다. 또한 사료가격 상승과 소값 하락에 따른 경영압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김영길 신임 대의원의장

“젊은 층 대상으로 고가 인식·둔갑판매 불신해소에 주력”



김영길 신임 대의원의장(사진 오른쪽)은 “현재 한우고기의 소비둔화 현상을 구제역에 따른 불안감이 아니라 높은 가격과 함께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둔갑판매 등의 불신에 따른 것으로 분석한다”면서 “향후 한우자조금의 주요 홍보 대상을 한우고기 구매 의향과 지불의사가 높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높은 가격과 불신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자조금 사업이 한우농가들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의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사명감과 성실함으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2011년도
신규사업

방역대책협의회 구성... 구제역 청정화 앞장

원산지표시제 신고사례금 4배 증액

1. 질병방역협의회 구성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의거해 방역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한우관련 질병과 구제역 정보 공유 및 대책수립 등 질병관련 모든 정보를 관리하며 언론대응과 질병관련 정보지 제작 및 청정축산운동 실천을 통하여 초기 구제역 청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한우유통투명화 신고사례금

원산지 표시 등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건당 포상금을 증액하여 소비자들의 신고 참여율 제고로 한우유통 투명화를 실현하고자 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의거해 포상금액의 4배를 위반 신고사례금으로 지조금 예산에서 지급.

3. 한우모니터링제 운영

한우농가의 생산의향 및 소비자의 소비추세를 모니터링하여 생산·유통·소비 동향을 파악해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4. 한우알림 순회공연

주말과 공휴일, 축제행사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어린이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우알림 연극 및 공연을 진행해 한우를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홍보하고자 함.

위반물량의 실거래기액	정부지급포상금 (만원)	유통투명화 신고사례금(만원)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30	120
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50	200
500만원이상~1,000만원미만	100	400
1,000만원이상~1억원미만	150	600
1억원이상~10억원미만	175	700
10억원이상	200	800





특별기획 |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대책

초동대응 체계 획기적으로 강화... '일시정지제도' 도입

질병발생 즉시 '심각단계'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 시행
매몰보상금 · 백신접종 관련 축산관계자 책임분담 원칙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도입 시설 확보 축산 경영 · 방역 교육

정부는 3월 24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구체역과 AI 등 가축질병으로 고통을 겪게 해 축산인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축질병 방역 체계를 보다 확고히 정비하고 선진화된 축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4월 말까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총리실이 전체적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요 대책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축질병 방역 분야

방역매뉴얼 완전 개편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은 방역매뉴얼을 완전히 개편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초동대응 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앞으로는 네덜란드가 실시하고 있는 'Standstill(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해 구체역 등 가축질병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따라서 가축질병 발생 초기부터 해당 농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분뇨 · 사료차량 등도 일정기간 이동통제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軍)간 공조체계도 강화돼 민 · 관 합동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설치하고 신속한 초기진단을 위해 시 · 도 방역기관에 항원진단키트 보급과 권역별 거점 정밀분석실을 설치하며 백신전문 연구센터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경검역 강화

해외여행객에 대한 공항과 항만의 검역시스템을 강화해 축

산관계자는 질병발생국가 방문 시 신고해야 하고 소독대상도 일반 국민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원활한 백신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공동운영방안 및 가축질병 공동연구 방안 등을 중국 · 일본 등과 협의키로 했다.

농가 방역의식 제고 및 상시 예찰 강화

축산농가는 농장출입차량과 탑승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소독 및 기록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등록 제를 도입해 상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고 축산차량이 시 · 도 간 경계를 통과할 경우 별도로 소독하도록 했다. 또한 축산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신고 및 예방교육과 소독을 의무화했다.

축산관계자 책임분담 확대

매몰보상금이나 백신접종 등과 관련해 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을 마련했다. 우선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매몰보상금에 대해 상황별 · 발생시기별 · 규모별로 적정 보상기준을 마련해 지급하고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폭을 설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백신접종 비용의 일부를 분담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 · 지방 방역조직 개편

중앙 방역기관으로 기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 · 검사기관을 통합해 (가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립하고 가축질병축산밀집지역 등에 5개 권역별로 가축질병방역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2012년까지 구축해 통합방역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도입

시설 확보 축산 경영·방역 교육

HACCP·친환경 인증농장 계속 정비

축산업
선진화 분야

2012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

한다. 축산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확보하고 축산경영과 방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돋겠다는 게 정부측의 기대다.

우선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해 현재 등록기준인 소 300㎡, 돼지 등 50㎡ 초과 사육시설에서 모든 농가로 확대하고 등록축종도 소, 돼지, 닭, 오리 4개 축종에서 모든 가금

류·우제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현재의 사육 위주에서 사육-운송-도축 단계를 포함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HACCP 인증, 친환경 인증 농장 등의 제도도 계속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도축장·사료공장 등은 지역단위로 거점화하여 질병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구제역 백서'를 제작하는 작업도 추진 키로 했다. ◎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관련 주요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매뉴얼 개편	초동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경보 단계 : 관심(주변국 발생) → 주의(국내 발생) → 경계(확산) → 심각(3개 시·도) ■ 발생 시·군에 초동대응팀 파견 ※ 농식품부, 검역원 등
	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m 또는 3km 매몰후 확산시 긴급 백신
	소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운반차
	외국인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제도 없음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 보상
	감염가축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매몰 중심
조직 정비	중앙 방역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교환
축 산 업 선 진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 등록제('03년 도입) ※ 등록대상 : 소(사육시설 300㎡ 이상), 돼지·닭·오리(50㎡ 이상) ■ 친환경 축산 체제 미흡 ■ 도축시설·사료공장 등의 권역별 독립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농가 축산업 허가제 도입('12년부터) - 현행 축산업 등록제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 등록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 모든 가금류·우제류 사육농가 ■ 사육·운송·도축 단계를 포함하는 친환경 축산 강화 ■ 도축시설·사료공장 등의 권역별 독립성 강화 체제로 개편



 특별기획 | 축산업 선진화대책 관련 한우협회 건의사항

동물복지형 사육·운송은 현재는 시기상조

축종별 종량제로 구분 시행해야

**정부 확실한 지침 우선 제시하고 미준수 농가 불이익 바람직
수매물량 유통 시 한우값 급락…수매방식 개정 요구**



전국한우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축산업 선진화 대책 중 일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선진화 대책에서 언급된 방역, 가축총량제, 축산업 허가제, 보상금 차등지급 등의 사안에 대해서 농가입장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회장단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전의했다. 주요 전의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Q 축산업 허가제, 친환경 축산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A 농장 방역과 교육이수율을 강화한 등록제와 이와 연계한 허가제도가 필요하다. 단순히 농가를 규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동물복지형 사육·운송은 현재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로 보완이 요구되며 질병 방역을 위한 HACCP농장 인증기준방안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소규모 농가의 HACCP 인증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소규모 농가 HACCP기준을 완화시켜 모든 농가가 HACCP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요청할 것이다.

Q 가축총량제 개선방안은?

A 지역별 가축 종량제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는 바이지만 지역의 축종간 문제를 감안해 축종별 종량제로 구분하여 시행해야 한다. 일률적인 종량제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축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Q 매몰처분 보상체계에 반영해야 할 사안은?

A 소독수준과 방역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농가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농가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농가의 책임을 물으려면 정부가 확실한 지침을 우선 제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의 차등지급이나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보완해야 한다. 또한 개량우에 대한 가치의 재평가를 요구한다. 현행 암소의 가축시장 거래는 고기소로 거래되고 있어 번식을 위한 암소등록우의 시장가격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암소등록우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농가의 개량의지를 높이고 우량 한우 생산에 박차를 다해야 한다.



**Q 한우 수매물량이 시장에 유통되어 한우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수매 규정이 어떻게 변경돼야 하는가?**

A 이번 수매 물량이 시장에 유통되어 한우가격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친 만큼 수매 방식에 대한 규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한다. 향후 수매 관련 규정은 2가지의 방향 중 하나로 진행돼야 한다. 첫 번째는 1년 평균가격으로 수매를 실시해 시장유통에서 격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동제한 기간동안 사료비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06
07

방역주체별로 책임분담... 방역의식 제고

축종별 농가당 사육규모 감안 생계안정자금 차등지급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지역순회 토론회 자료를 통해 보상금지급 체계개선 내역을 밝혔다. 최종 확정이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 보상금 체계 개선을 파악할 수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방역주체별 책임분담을 통한 방역의식 제고, 적정 수준의 매몰보상금 지급을 통한 보상수준 왜곡 방지, 객관적이고 확인 가능한 보상금 차등지급 기준 도입, 매몰가축 평가 시 객관적 자료에 의해 평가, 생계안정자금 지원대상자 변경, 축종별 농가당 사육규모를 감안해 생계안정자금 차등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달라진 살처분
농가 보상정책

농민연대 성명서(요약)

가축전염병 예방 하위법령 개정, 축산인들의 올가미인가?

금번 개정안은 축산농가 규제 일색으로 축산농가들이 요구하는 보상금 현실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것과 대치되고 있다. 100% 지급하던 보상금을 70%로 감액하면서 방역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질병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발병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구제역이 상자화되어 백신을 접종하는 현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다. 또한 백신 미접종 중인 사슴·염소 등 일부 우제류 및 NSP 양성가축과 아생동물로 인해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액논란 자체가 모순이다. 이에 축산인들의 올가미를 채우는 가축전염예방법 하위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축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계안정지급 대상이 실질적으로 사육주체인 위탁사육자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농가에 실질적 보상비가 즉시 100%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0% 선자급 후 50% 정산지급 한다고 하면서 매몰된 지 3개월이 지나도 정산을 못받고 있어 지금입박에 시달려 재입식을 포기하고 농장 폐업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축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동제한 해제 후 관할 시·군에 입식 신청

가축방역관 확인거쳐 이동제한해제 30일이후 입식

한우
재입식 요령

농협은 축산농가의 가축 재입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한우 재입식 요령'을 소개했다.

한우 재입식 요령은 4단계로 이어지는 축사소독, 농장 내 시설 및 주변지역 소독, 가축 분뇨 처리, 성공적인 재입식 준비 등으로 구분된다.

축사소독은 1단계 예비소독 및 분뇨제거작업(30분 이상 마르지 않도록 소독약 살포→분뇨, 사료 등의 유기물 제거→세부 청소 작업), 2단계 세척 작업(세부 청소작업→수세미와 브러쉬를 이용한 이물질 제거), 3단계 소독작업(고압소독기를 사용해 천장, 벽면, 바닥 순으로 순차적 소독→우사 전체가 충분히 젖도록 소독약 살포), 4단계 건조 및 소독,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농장주는 이동제한 해제 후 관할 시·군에 입식을 신청하고 가축방역관의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을 시,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30일 이후 입식한다. ◎

가축 매몰 후 재입식 준비 일정표 ►

	구분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축사 내부	청소	예비 소독 및 분뇨 제거	1주차와 동일한 반복작업				
	세척	잔존 유기물 제거					
	소독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한 소독					
	건조 및 점검		소독제 건조 및 농장주 점검		소독제 건조 및 농장주 점검		
축사 외부	시설소독	농장 내 기타 시설 외부 소독	필요에 따른 1주차와 동일한 반복 작업				
	주변소독	축사 및 농장 주변 소독 매몰지 주변 소독					
	훈증소독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한 소독					
그 외 작업	분뇨처리	축사내 퇴비소에 저장 및 소독처리	확실한 소독을 위해 교반 작업	자원화 처리			
	가축방역관 검사					가축방역관 검사	
	재입식						이상없을시 입식시작



현장속으로 | 유통자문화의



“한우고기 한 점이라도 더 판매… 모든 방안 검토”

“이동제한으로 출하가 미뤄진 두수가 약 10만 마리이며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으로 소 값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우자조금은 적체물량을 해소하고 소값의 안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황엽 한우자조금 사무국장은 현 상황과 향후 한우자조금이 진행할 소비촉진사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5일 유통자문화의를 진행했다. 한우산업이 회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진행하던 행사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파격적인 소비홍보가 4~5월 안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예고한 것이다.

한우판매 인프라 재건의 기회삼아야

이번에 진행하고자 하는 대규모 소비촉진행사는 단기적으로 지난 구정에 팔리지 못한 물량들을 해소해 소값의 하락폭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소비자층을 만들어 한우 구매심리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관계자 모두 입을 모았다.

김건수 순우리 대표이사는 “소비가 부진한 것이 가계 소비약화라면 상관이 없는데 수입육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문

제”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무너지고 있는 한우산업의 판매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한우산업의 지속성을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가 판매 ‘득과 실’ 논란

한우자조금이 진행할 한우 소비촉진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했다.

그러나 마케팅 방식과 관련해 저가판매방식을 통한 소비자들의 지갑열기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고급육의 이미지를 지켜나가기 위해 증정품행사나 카드할인혜택 등을 통한 간접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분됐다.

최경재 고깃집 수림원 대표는 “저가마케팅으로 이번 상황만 넘기려는 것은 근시안적 사고”라며 “한우는 고급육을 지향해야하는데 이를 일시적으로 파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유연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차장도 “반값행사 등의 프로모션 방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구제역이 끝나가는 기간에 맞춰 시식행사 등을 통해 소비 홍보를 진행하고 가격은 현상유지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마트의 경우 할인판매를 통한 소비촉진 행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주혁 GS리테일 축산팀 과장은 “한우가격은 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며 “소 값도 많이 떨어진 상황인 만큼 과감한 할인행사를 통해 판매를 촉진하고 잠재적 소비자들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중 홈플러스 축산팀 대리도 “많은 행사를 진행한 결과, 카드할인과 반값 행사 모두 효과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한 만큼 할인행사를 병행한 다양한 행사로 소비를 이끌어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소비트렌드, 소셜커머스를 잡아라

정세훈 착한 고기 대표는 “2월 한달간 최악의 매출을 기록해 자구책으로 소셜커머스를 통한 할인행사를 진행했다”고 말하고 “매장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짧은 시간에 세트상품 3만개가 매진됐다”며 새로운 소비트렌드인 소셜커머스

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란 전자 상거래의 일종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방식으로 소셜커머스를 이용한다면 한우의 고급육 이미지를 지키며 일시적 소비촉진도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영원 한우협회 부장은 “새로운 형태의 프로모션이라도 소비촉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면 해당 업체에 맞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방위적 소비촉진 행사…업체별 맞춤 진행

한우자조금은 이번 유통자문회의를 통해 이번 소비촉진 프로모션은 판매업체와 협의 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업체마다 소비자층이 다르고 원하는 지원방식이 다른 만큼 천편일률적인 프로모션을 배제하고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남호경 위원장은 “한우 고기를 단 한 점이라도 더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철저히 검토한 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한우 소비 촉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



파워인터뷰 | 남호경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전국에 한우열풍 불도록 대규모 소비촉진행사 계획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한우수급과제 해결



남호경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구제역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소값 하락과 사료값 상승 등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힘들다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습니다. 4월말부터 진행할 대규모 소비촉진행사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적체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한우 유통망의 대대적인 점검과 암소 자율도태운동을 통해 한우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남호경 위원장은 지금 한우산업이 처한 위기에 서 농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5월 대규모 소비촉진행사, 업체별 맞춤형행사 진행 예정

한우자조금은 지난 5일, 유통자문회의를 개최

해 판매·외식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대적인 소비촉진행사를 협의했다. 회의석상에서 남 위원장은 “소비자의 기억 속에 구제역은 차츰 잊혀지고 있지만 한우의 이미지는 훼손된 채 그대로 있다. 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애정을 되찾고 소비위축을 해결하려면 이전 보다 더욱 적극적인 소비촉진행사가 절실히다. 전국적으로 한우열풍이 불 수 있기를 바라며 업체별 판매방식이 다른 만큼 맞춤형 소비촉진행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우가격의 안정화인 만큼 한우자조금은 판매·외식업체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전방위적인 소비촉진행사를 진행하며 추석까지 안정적인 수급을 맞춰가고자 한다.

유통인프라 점검, 암소 자율도태운동 추진

한우유통의 대대적인 개선작업도 돌입한다. 중·장기적으로 한우의 유통망 전체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한우유통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우유통망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한우유통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암소 자율도태운동도 다시 추진된다. 지난달 30일 한우협회 이사회에서는 현재 사육두수가 수요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상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암소 도태운동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는 지난해 한우인의 날 행사에서 ‘저농력 암소 10만두 자율도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하려 했지만 구제역발생으로 중단되었다. 남 위원장은 “현재 적정 한우 사육두수는 250만두 내외로 추정되며 사육두수가 과잉되어 심각한 상황이다. 사료값 상승 등 경영수지 악화를 대비하기 위해 암소 자율도태운동에 한우농가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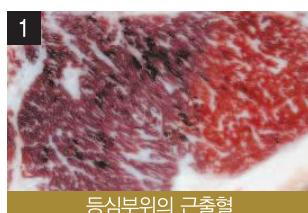




이선호
축산품질평가원 팀장

소도체 이상육(결함)의 발생원인 및 현상

현재 소 도체에서 이상육(결함) 발생 시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사육농가와 유통업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하루 평균 3~4건이 발생한다. 소 도체에서 발생한 이상육은 근출혈, 수종, 근염, 근육제거, 육색이상, 지방색 이상 등으로 특히 경매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이상육은 품질평가사가 발견할 수 없는 도체 심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주로 근출혈, 수종, 근염 등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소도체 이상육의 발생원인 및 현상에 대해 소개한다.



1

등심부위의 근출혈

원인 중 하나로 실신 후 방혈까지의 시간이 길면 발생하기 쉽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목심부위의 수종

상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적인 경우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 교잡을 높이고자 비타민A 급여를 제한하는데 과도할 경우 수종이 발생한다.



3

등심(승모근)의 근염



4

갈비와 양지 부위의 외상

1. 근출혈 : 방혈 전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근육내 모세혈관이 파괴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근육내 반점(spot)모양의 검은 혈액응고 물이 얼룩처럼 보이는 육이다.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육 내에 출혈이 일어난 부분이다. 반입·도축 시 소를 무리하게 몰아넣을 경우 타박, 길비뼈 골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5

설도와 갈비 부위의 근육제거



6

정상육과 암적색육의 육색차이

2. 수종 : 고기내 세포간격과 체공에 여분의 조직액이 쌓인 상태를 수종이라 한다. 사육 시 발생하는 증상인 순환기장애, 비타민A 결핍 등에 의한 전신성의 경우와 운송·계류·도축 시 상처에 의한 손상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가 기피하기 때문에 육색은 매우 중요하다.

3. 근염 : 근육염증이 아니라 근지방증, 지방치환육으로 불리우며 과도하게 지방이 축적된 근육을 말한다. 근육의 형체는 있지만 내부에 근육덩어리가 위축되고 지방이 치환된 상태로써 승모근에 많이 나타나며 도체상으로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4. 외상 : 도축장으로 운송, 계류, 도축 시 외상, 타박상 등의 손상을 입어 피하와 근

5. 근육제거 : 질병과 상처 등에 의한 손상이 있는 경우 위생검사를 위한 도체로 말하며 부분적 폐기가 이에 해당한다.

6. 육색이상 : 주로 비정상적으로 짙은 쇠고기(DFD육)로 써 육색이 어둡고(Dark), 단단하며(Firm), 표면이 건조하고(Dry), 만지면 끈적거리며, pH 6 이상이다. 뒷다리와 등심부위에 잘 발견되며 스트레스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맛에 영향은 없지만 소비자가 기피하기 때문에 육색은 매우 중요하다.

7. 지방색 이상 : 황색지방은 육색이상과 같이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아 경제 가치가 낮다. 발생원인은 청초 등에 있는 β-카로틴이 체지방으로 옮겨져 축적되기 때문이며 방목한 소에 주로 보이며 유전적 문제도 있다.

8. 기타 : 이분할 불량, 골절, 방혈분량, 이상취, 이상색 등이며 방혈 불량은 다발성 근출혈과 달리 정맥내에 혈액이 남은 상태이다. Ⓜ



Information |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牛가차차 우리한우!! 농내요 우리모두!! 농가·지역축협 자발적으로 시식회·할인행사 실시

경북 예천 – 무료시식회(4/7)



한우협회 예천군 지부는 지난 7일 예천군청 앞 야외행사장에서 예천참우 무료 시식회를 펼쳤다. 한우

선도농가 6명이 자발적으로 각 한우 한 마리씩을 선뜻 내놔 의미를 더한 이번 시식회는 약 1천여명의 인파가 몰리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밖에도 예천군청을 통해 군부대 및 사회복지시설에 한우농가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한우를 전달했다. 박용제 예천군 지부장은 “구제역에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자분들과 방역활동에 협조를 해주신 지역주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행사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한우를 많이 사랑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셜커머스 – 착한고기(4/1~3)



한우자조금은 젊은 층에게 각광받는 소셜커머스인 ‘티켓몬스터’와 전국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착한고기’와 합작해 한우 할인판매행사를 펼쳤다. ‘착한고기’의 한우 등심메뉴(43,000원/500g)를 40% 할인된 가격인 25,800원으로 즐길 수 있는 쿠폰을 티켓몬스터에서 지난 1~3일까지 판매, 3만여장이 조기 매진돼 한우소비촉진에 일조했다.



충남 논산 – 논산딸기축제(4/8~10)



구제역으로 통제됐던 지역행사가 따뜻한 봄날씨와 함께 다시 시작되었다. 논산딸기축제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펼쳐져 한우협회 논산시지부는 한우 불고기시식회와 할인판매행사를 진행했다. 1등급 등심 37,000원/kg, 2등급 등심 22,000원/kg, 1등급 양지·사태 22,000원/kg으로 40% 할인판매 및 현장취식을 진행해 축제기간동안 총 7,6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성황리에 끝마쳤다.

경북 청도 – 청도소싸움축제(4/15~19)



우리나라 대표 민속 축제로 자리 잡은 청도 소싸움 축제가 지난 15일에 개최해 닷새 동안 펼쳐졌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만여명 증가된 20여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우자조금은 한우불고기 시식행사를 진행하며 지역축협과 연계해 한우 반값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한우 1kg당 등심 1++는 55,000원, 한우족 선물세트 50,000원, 한우국거리 18,000원, 한우갈비 33,000원에 판매를 진행해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충남 당진 – 합덕한우단지 · 당진축협(3/8)

합덕 한우단지는 3월 8일부터 기본가격 대비 최대 25% 까지 할인판매를 해 기존 600g당 1만 9000원에 팔던 1+등급 한우불고기를 5,000원 인하된 14,000원에 판매 했다. 이번 세일행사는 지역 상인들이 구제역 여파로 침체된 한우 농가를 살리고, 한우특화거리 정착을 통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당진축협도 일제히 가격을 인하해 불고기 9,900원/600g, 국거리 등 정육부위 13,500원/ 600g에 할인 판매를 진행했다.

강원 횡성 – 횡성축협(3/30~)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구제역으로 큰 피해를 겪은 횡성한우는 이미지 제고와 소비촉진을 위해 3월 30일부터 각 등급별 최고 30%의 가격인하를 실시했다. 횡성축협 전용원 계장은 “이번 가격인하로 온라인 판매가 호전되고 있으며 소값이 정상화될 때까지 시행

강원 홍천 – 홍천축협(4/6~20)

홍천 늘푸름 한우는 지난 6일부터 20일 까지 1등급 등심 50% 할인 판매를 실시했다. 45,000원/kg

으로 판매한 이번행사는 등심뿐만 아니라 정육 및 부산물부위도 15~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다. 홍천축협 변기혁 주임은 “구제역으로 고생한 지역농가를 위로하고 다시금 소비자들이 한우를 많이 애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이번 할인판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 – 경주축협(3/24~4/24)

경주 축협은 지난 3월 24일부터 한달간 한우 반값 행사를 펼쳐 한우꽃등심(1등급 이상)을 3,400원/100g, 국거리를 1,500원/100g에 판매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재방문과 한우소비 유도를 위해 경품행사를 마련하고 행사기간 중 특정날짜를 지정해 1일 200명에게 선착순으로 사은품을 증정했으며 고객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고기 부위 맞추기, 즉석경매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쳤다. 최삼호 조합장은 “원가이하 판매로 손해를 보지만 한우소비 판매촉진과 한우농가의 빠른 재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 문경 – 문경축협(4/11)

문경시와 문경축협은 11일 축산농가를 돋기 위한 문경한우 소비촉진 세일 행사를 개최해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문경축협은 행사를 위해 준비한 문경한우 6마리 분의 고기가 모두 팔려 3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날 행사는 시민들이 축산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문경한우가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소비가 촉진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1년도 농가기술교육 전문교육기관 안내

지역	소속	담당자	연락처
강원	상지대 신학협력단	임호근	T) 033-738-7788 F) 033-730-0148
	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김태일	T) 033-330-0609 F) 033-330-0660
경기	한경대 축산기술센터	윤우정 교수	T) 031-670-5289 F) 031-670-5238 T) 031-670-5289 010-9260-0434
충북	충북축산위생연구소	엄주광 농업주사, 전순홍 농업주사	T) 043-220-3723 F) 043-220-3719
충남	천안연암대	전경협	T) 041-580-1222 F) 041-580-1270
	공주대 산업과학대학 자연과학연구소	김건중 교수, 김석은 강사	T) 041-330-1243 F) 041-330-1249
전북	전북증축시험소	축산시험장 이은미, 조안태	T) 063-290-6509 F) 063-290-6508
	전북대	최낙진 교수	T) 063-270-2579 010-2649-6604
전남	전남대	국길 교수	T) 061-331-2827 F) 061-331-2801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유대중 농업연구사	T) 061-430-4211 F) 061-430-4399
경북	대구대	조익환 교수	T) 053-850-6725 F) 053-850-6729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오병곤	T) 054-638-6012 F) 054-638-6013
경남	경북대	이성준 교수, 임해수 교육실장	T) 053-950-5974 F) 053-950-5955
	경상대	정우철 조교	T) 055-751-5508 F) 055-756-7171
부산대		이홍구 교수, 정성배(행정직원)	T) 055-350-5600 F) 055-350-5510
	제주	김영훈	T) 064-710-7936 F) 064-710-7939
전국	농협 중앙회	김태관 차장	T) 02-2080-7489 F) 02-2080-7490
	농협 축산연구원	정재경 연구원	T) 031-659-1327
농협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황희연	T) 031-654-9626 F) 031-654-0975
	한국종축개량협회	김현규 팀장	T) 02-588-9301 F) 02-522-0171
경기	경기지역본부	이승훈 팀장, 곽병국 차장	T) 031-220-8761 T) 031-220-8763
	강원지역본부	이동체 팀장, 김병화 차장	T) 033-258-8150 T) 033-258-8151
	충북지역본부	박종하 팀장, 김경덕 차장	T) 043-229-1740 T) 043-229-1742
	충남지역본부	김주명 팀장, 이재호 과장	T) 042-229-6286 F) 042-229-6300
	전북지역본부	김종필 과장	T) 063-240-3155 F) 063-240-3160
	전남지역본부	나병만 팀장, 정덕호 차장	T) 062-220-7590 T) 062-220-7592
	경북지역본부	김인대 팀장, 변성호 차장	T) 053-940-4260 T) 053-940-4262
	경남지역본부	최원일 팀장, 권경화 과장	T) 055-268-1870 T) 055-268-1873
	제주지역본부	김길진 팀장, 최형규 차장	T) 064-720-1390 T) 064-720-1392

애독자 코너



정부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지난달에 발표했습니다. 방역매뉴얼을 완전 개편했고 축산업 협약제 등의 시행안이 주요 골자로 향후 축산정책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방역매뉴얼 내용 중 초동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네덜란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한우자조금 소식지 4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정답을 게재하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송아지 설사 예방약을 보내드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3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허성근(전북 김제시), 오재진(충남 공주시), 이다정(경북 경주시), 정희경(경남 하동군), 이광희(경북 영천시), 마미진(전북 고창군)

인증점 소개

청풍호 청정한우

전화 : 043-647-9485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466-44
메뉴 : 등심(600g) 50,000원
황기사골곰탕 5,000원



청풍호반 가는 길목에 자리한 청풍호청정한우는 한우 암소 1등급 이상만 취급해 고객들로 연일 문전성시다. 금성면 한우협회 회원들이 비육한 한우는 물맑고 산깊고 공기좋은 곳에서 자란 탓에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일품으로 입안에서 사르르 녹기 바쁘다. 거기에 약초의 고장답게 황기를 넣은 곱탕은 그 진한 맛이 일품이다. TV에 소개될 만큼 명성과 소문이 가히 폭발적이다.

한우자조금

등록번호 114-82-61108

비매품 제7권 제16호 등록 제66호 발행일 2011년 4월 25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60 케피아회관 3층 Tel : 02-522-4292~3 Fax : 02-522-3605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Tel : 02-525-1053 Fax : 02-525-1054 디자인 HNCOM Tel : 02-585-0091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전재할 수 없습니다.



“구제역 이미지를 조기에 불식시키고 대대적인 소비홍보로 한우가격 안정에 이바지하겠습니다.”

● 홍보 기본방향

구제역에 이은 소값 하락으로 얼마나 고통이 크십니까?

한우자조금은 소값 안정을 위한 소비촉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구제역이 조기종식 되어야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들의 구제역 이미지를 “불식” 시켜야 합니다.

셋째, 대대적인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합니다.

● 주요 홍보 방안

〈 유통 · 소비 〉

- 범국가적 대대적 소비촉진 행사
(4월 말 이후)
- 한우업체 공동 특별할인
 - 민족한우로 소비자 접근
 - 구제역이미지 조기 차단
 - 한우업체 조직화(협회 등)
- 군납·학교 급식 확대
- 소비홍보사업 강화
(광고, 미디어 홍보)
- 각종 하반기사업 상반기 집행



〈 생산 및 관련업계 〉

- 가격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출하물량 계도
- 적정 사육두수를 위한 자율도태 추진
- 신규 진입 장벽(두수상한제 등) 추진
- 관련산업 종사자 소비선도 캠페인

소값 안정